

지난주일(7월24일) 설교 발췌

제목: 성령을 주시리! (눅 11:1~13)

꿈에 그리던 세계 일주를 했다고 합시다. 그 과정에서 얻은 즐거움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압니다. 다만 외면할 뿐입니다. 외면한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평이 사냥개에게 쫓기다가 머리를 눈더미에 파묻고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존이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즐거움에 만족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엄청나게 즐거운 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는 혼자 숨을 쉬어야 하고, 혼자서 걸어야 하고, 혼자서 자리에 누워야 합니다. 결국은 혼자서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의식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의식하는 사람이 의식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누릴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를 화두로 삼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1년 반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옵니다. 소위 은퇴입니다. 목사직 은퇴가 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퇴는 삶의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뿐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전에는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이제는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뿐입니다. 이전에는 승용차를 타다가 이제는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겁니다. 은퇴 전이나 후나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죽음 준비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 23:46)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백을 흉내라도 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젊은 분도 모두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두려우신가요? 생각하기 싫으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 하나님도 죽을 수 있으니 피조물인 우리가 죽는 건 당연합니다. 2) 하나님도 죽음을 경험했으니 죽음이 더는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이미 극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졌기에 우리는 자녀가 부모를 대하듯이 안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 세상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로 삶이 가끔 답답하겠으나, 근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 충만에 들어간 것입니다. 노래하고 춤을 추듯이, 기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성령의 오심(주심)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2년 7월31일

성령강림 후 여덟째 주일
세계 교회력 「다」해 36주

♣ **오늘의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호 11:8b)



위 사진이 어떤 이들에게는 젊은이들의 물 들인 머리카락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옥수수수염'이다. 충분히 여문 옥수수수염으로 차를 만들어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다. (7월28일 오전에 정 목사가 마당에서 찍음)

예배 장소: 서울 동직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 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00~5:00 / 간식 및 친교: 5:00~5:20 / 교우모임: 5:20~6:20
목사: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e/churche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눈 깜짝하는 사이에 올해도 일곱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래 기억하고 싶은 일도 있고, 빨리 잊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든지 우리 주님 안에서는 선한 길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10장 (전능 왕 오소서) 1, 2, 4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무더운 계절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순간마다 느낍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바람 소리, 까마득히 먼 곳에서 달려오는 별빛과 블랙홀, 꽃과 풀과 나무의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색깔, 우리의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생명 통치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근거를 위협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 앞에서도 겁먹지 않겠으며, 더 나아가서 악한 방식으로 양값을 시도하지도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함께 부르는 폐제 찬양」 5장 (찬미하여라) 2회 ... 다 함께

찬 미 하 여 라 오 나의 영 혼 아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알리는 말씀]

1.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접종과 방역에 신경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확진 후 잘 회복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서울샘터의 대면 예배는 서울여성플라자 대관 상황이 불가하지 않는 한 지속되며, 확진자 추세에 따라 정 목사님 방문 여부는 유동적일 수 있으나 매달 둘째 주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지난 주일 김동호 목사님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김하루(남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길 기도합니다.
4. 임민성 집사의 전시회가 오는 8월 12일~26일까지 갤러리 도올에서 열립니다. 작품 엽서도 준비돼 있으니 예배 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일(7월24일) 현금: 410,000원(주일 170,000원, 통장 24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7, 8월 예배준비

날짜	예배실	예배 인도	성경 봉독	헌금/안내	예배준비
7월31일	4층 아트컬리지5	이춘우	윤혜정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최선아 박은숙
8월7일	4층 아트컬리지5	이춘우	박수진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오미영 이유선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1절 ... 다 함께

증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성령강림 후 여덟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거룩한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거룩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며,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와 긍휼하심이 한량없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온갖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이 자기의 잘못에는 너그럽고 남의 잘못에는 엄격했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일상을 생명 충만하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경건한 일에 소홀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에 치우쳤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빈부 차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각자도생이 삶의 지혜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기력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선포

목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귀한 말씀과 2천 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뢴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국악찬송」 6장 (영광 누리소서 3) ... 다 함께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Richard Blanchard **Fill My Cup Lord** Richard Blanchard
arr. by Eugene Clark

Capo: 1st A (A# dim) E7 A

1. 우 물 가 의 여 인 처 럼 난 구 했 네 - 헛 되 고 헛 된 것 들 을 그
Like the woman at the well I was seek-ing For things that could not sat-is-ty. And

때 주 님 말 하 시 기 를 - 내 샘 에 와 생 수 를 마 셔 라 오 -
then I heard my Sav-ior speaking: "Draw from my well that never shall run dry." Fill my

주 님 - 채 워 주 소 서 - 나 의 잔 을 높 이 들 니 다 하 늘
cup, Lord, I lift it up, Lord. Come and quench this thirsting of my soul. Bread of

양 식 내 게 내 려 주 시 고 채 워 서 온 전 하 게 하 소 서
heaven, feed me till I want no more. Fill my cup, fill it up and make me whole.

요 4:6-15

말 씀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영혼의 중심에 새기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에 휘둘러서 혼탁해진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투명하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불꽃으로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호세아 11:1~11** ... 윤혜정 집사

성서교독 시편 107:1~9, 43 (새로운 예배 시편) ... 다 함께

고마우신 주 하나님 어지시고 어지시다 인자하신 주님사랑 영원무궁 하시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함께 노래하라 원수들의 함정에서 건지심을 받았도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말씀 올리어라 감사기쁨 찬송하라
*길잃었네 어찌하나 우리갈길 잃었다네 어느방향 가야할지 사막이라 막막하네
굶주려서 허기지고 물이없어 목이타니 가련하다 이인생들 기진맥진 하였구나
*주님향해 통곡하고 한숨쉬인 기도하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네
바른길로 인도하사 제길가게 하셨으며 사람사는 마을길로 들어서게 하셨다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베풀어준 크신사랑 살려주신 크신능력 인생들이 찬양하라
타는목을 축이라고 생수가득 떠주시고 주린배를 채우라고 진수성찬 차리셨네
*지혜있는 사람들이 주님일을 보았는가 모든일들 깊이새겨 주의사랑 깨달으라

둘째말씀 골로새서 3:1~11 ... 윤혜정 집사

*셋째말씀 누가복음 12:13~21 ... 윤혜정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A - men, a - men, a - - - men.

아 - 멘 아 - 멘 아 - - - 멘

설교 **하나님의 긍휼과 거룩하심** ... 이춘우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1, 3절 ... 다 함께